

## 회 원

### 금호산업, 신훈 사장 부회장 승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건설사업부에서 부회장 1명, 상무 7명, 이사 2명 등 총 10명의 임원인사를 1일자로 단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번 인사는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실시되었는데 내년이 그룹 창립 60주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승진 발령했다. 특히 신훈 금호건설 사장은 이번 임원 인사에서 신설된 부회장직으로 승격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신훈 신임 부회장의 취임 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부채비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건설업 사공능력평가 순위를 10위권 이내로 끌어올린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상무 조현국 정창희 한정웅 진성의 이효범 한도수 정태승 △이사 이진국 김경완

### 동부건설, 신임 부회장에 임동일 씨 선임



동부그룹은 12월 1일자로 임동일씨를 동부건설의 CEO 및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임동일 부회장은 1942년 대전출신으로 1965년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

하고, 1970년에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삼성비서실 이사, 삼성중공업 전무를 거쳐 삼성의료원 건립추진본부장, 삼성항공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동부건설은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건설부문에 황무성 대표이사 부사장, 물류부문에 최현기 대표이사 부사장을 선임

했다.

### 대우건설, 32명 임원 승진 인사

대우건설(사장 박세홍)은 도은대 상무를 전무로 승격시키는 등 임원 3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인사에서 유사 기능의 사업 본부를 총괄하는 부문장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승진 <전무> 도은대 <상무A> 민춘식 조운수 김기문 이희석 한장훈 박영식 <상무B> 김영수 구임식 김경수 이상범 남기혁 <상무보> 구교한 민병삼 정현주 김두순 최은수 오석창 이용섭 김봉근 김수봉 설상열 전재우 양혜석 허일상 김상수 민경일 백태룡 남세우 박영운 오홍조 홍기표 ▶전보 <부사장> △건축·주택부문장 김기동 △토목·공공부문장 박창규 △플랜트·해외부문장 정태화 <전무> △주택사업본부장 윤춘호 △해외사업본부장 윤국진 △국내영업본부장 서종욱 △기술연구소장 장현갑 △플랜트 사업본부장 김선구 △건축사업본부장 이용수 △외주구매실장 정재영 △토목사업본부장 도은대 <상무> △재무관리실장 이준섭 △투자관리실장 원일우 △관리지원실장 한장훈 △경영기획실장 박영식

### 대림산업 인사동정

▶승진 <전무> 영형진 윤영구 신현국 <상무> 김태규 김동수 김중호 최신현 추문석 조혁 박홍춘 윤용기 <상무보> 석재덕 김중오 엄진우 김기욱 박성만 박홍균 홍소명 손한집 신형관

### 고려개발 인사동정

▶승진 <전무> 임대국 유장현 <상무> 유성광 권오순 박무영 <상무보> 최은수 박영동



### 삼호 인사동정

▶승진 <전무>김연호 <상무>이영복 이상돈 <상무보>고광현

### 현대건설 인사동정

▶승진 <전무>정무현 김영수 안승규 이충기 권재형 차성준 이형근 이승렬 홍만수 강구현 손광영 <상무>양기종 김노식 이수열 최달우 김동태 이상복 정순원 김태구 김경호 김현덕 임홍규 권영주 이세행 오건수 유영현 박현익 송부림 김우용 김상욱 정옥균 김호상 <상무보>박철 박장수 전문욱 이봉일 엄필현 전재홍 민병화 정용설 송호근 이화일 권오식 이국형 <상무보대우>신영호 정경태 조수곤 이태준 김영기 송재륜 임경재 김신환 김민호 박현기 정근영 김연일

### GS건설 인사동정

▶승진 <전무>△기술본부장 권오훈 △토목사업본부 SOC·해외총괄담당 박종민 △주택사업본부장 이찬호 <상무보>△플랜트사업본부 국내화학플랜트담당 최희태 △플랜트사업본부 SP 9-10 공사담당 이병민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담당 신문도 △건축사업본부 LG필립스LCD담당 신동민 △주택사업본부 주택기획담당 김종규 △주택사업본부 주택복부사업담당 김진만 △토목사업본부 토목해외담당 장기복

### 우방, 대구 서문시장 화재참사현장 봉사활동

세밀 서문시장 2지구 화재의 참사 속에서도 대구시민들의 나눔정신은 빛났다.

우방(사장 변재신) 사내봉사모임(총장 조명수)은 화재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2월 30일 오후



10시부터 서문시장 2지구 인근 주차장 건물 옆에 임시천막을 설치한 후 2006년 1월 1일 자정까지 벌써 3일째, 매일 직원 20여명씩 전 직원이 돌아가며 소방대원과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차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30일부터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밤을 지낸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그룹봉사가 있는 서울에서 열린 세븐마운틴 그룹 창사 15주년 기념 및 중무식에 참가하느라 오후 늦게 대구에 도착한 직후 바로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봉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31일 오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부 봉사모임과 중구자원봉사모임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해 소방대원들은 물론이고 질서를 위해 파견된 경찰들과 함께 화재로 넋을 잃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서문시장 2지구 화재가 진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31일 오후부터 타버린 물건을 쓸어내기 위해 화재현장에 나온 상인들은 타버린 물건을 정리하느라 검댕이 된 얼굴로 자원봉사 천막에 들러 "화재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원봉사자 덕분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고 입을 모았다.

3일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은주 씨(38·우방 총무팀)는 "강추위 속에 온 몸으로 찬 물을 맞아가며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보

고 있으면 천막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울 정도"라며 "그분들의 희생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편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 말했다.

봉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명수 총장(40)은 "세밀 대화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시장상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하기만 하다"며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는데 작은 보탬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건설, 압구정 '하늘채 Housing Gallery' 개관

####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집중 공략 나서



코오롱건설(사장 민경조)이 '컬러테라피'가 적용된 브랜드 아파트 '하늘채'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개발 재건축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주택문화관

'하늘채 Housing

Gallery'를 강남의 요지인 압구정에 마련했다.

최근 잠실시영 재건축, 수원 신매탄 재건축 아파트 분양 등 수도권지역의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오롱건설은 압구정 상설 주택문화관을 마케팅의 전진 기지로 활용, 오는 2006년부터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코오롱건설은 작년에 수원, 울산, 대구 등에서 총 3311 가구를 분양했으며, 2006년에는 안양, 광명, 용인, 수원, 대구, 송도신도시, 부산 등 총 13개 사업지에서 약 77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압구정 '코오롱하늘채 하우징갤러리'는 지상 3층 총 연면적 1000평 규모로, 35평·55평 수주용 견본주택, 영상·전시홍보관, 연회홀이 있는 '재개발 수주관', 컬러테라피 및 유비쿼터스 체험관, 사이버카페, 다목적홀이 있는 '하늘채 분양관', 그리고 기업 홍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만들어 미래형 주택의 첨단 모습을 시연해 보일 예정이다.

한편 개관을 기념해서 설치작가 등 3인의 아티스트를 초대하여 "송구영신 이색 트리전"을 연다. 주택문화관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며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2차례 관람이 가능하다.

☎ 관람문의 02-3442-5107~8

〈자료제공 : 코오롱건설(주)〉

### 포스코건설, 중증장애인 돕기 봉사활동

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은 지난 12월 22일 아파트 모델인 영화배우 김유미씨, 스포츠단 소속의 체조선수 양태영 선수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 실존읍 향림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향림원은 생후 2개월 이상된 정신지체 및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200여 명을 돌보는 복지단체로, 이들은 가래 제거기와 난방용 히터 1대씩을 전달하고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시간을 보냈다.



또 포스코건설은 같은 날 경기도 가평군(꽃동네, 등대마을)과 충북 충주시(은혜의집)에 소재한 장애인 요양시설 3곳에도 냉장고, 세탁기, TV, DVD, 디지털카메라 등을 전달하고 제설작업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스코건설은 "나누는 만큼 세상은 반올림된다"는 슬로건 하에 자율적으로 결성한 90개의 봉사팀이 작년 12월 들어 독거노인 집수리, 병원 모셔다 드리기, 중증장애인 돌보기, 나환자촌 일손돕기, 생필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회사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난 12월 20일 포스코그룹 차원의 사회복지모금회에 전달한 70억 원 중 5억 원을 분담하기도 했다.

〈자료제공 : 포스코건설(주)〉

### 현대건설, 사랑의 나눔행사



현대건설(사장 이지승)이 본사가 소재한 종로구 지역 내 저소득 계층에 해마다 쌀, 연탄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 입사 예정인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작년 12월 7일 오후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들을 방문, 따스한 온정을 전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이지승 사장을 비롯해 2006년 입사예정 신입사원 115명과 회사 노조위원장, 여직원 모임인 현지희, 청년중역 모임인 주



니어보드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 본사 아산출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후 현대건설 자원봉사단은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등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들을 방문, 옥매트를 전달했으며, 특히 돈의동, 익선동 등 쪽방이 몰려 있는 지역을 돌며 일일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들을 방문, 온정을 전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초 종로 지역 주민 200여 명을 초청, 본사 인근 원서공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풍년제'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종로구에 10kg들이 서산 햅쌀 2400포를 전달한 바 있으며, 당시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들로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어 1180여만 원의 수익금을 마련, 이번에 독거노인 가구들을 지원케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 위해 그 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에 이지송 사장과 신입사원 예정자들이 함께 온정을 전하게 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현대건설(주)〉

### 현대산업개발, 연말 봉사활동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사장 이방주)이 연말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조직인 아이파크봉사단이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부천 범박동 산동네에 살고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낙후 주택 개보수, 연탄나르기, 생필품 전달 등 다양한 사랑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IPARK 사회봉사단은 사장을 단장으로, 전체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업무를 전략기획팀이 담당하며, 지사 및 현장주위의 현안을 위주로 사회봉사 활동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각 본부 기획팀에서는 봉사활동 실행계획인원 및 물품지원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PARK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체계적인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지속해 온 사내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문 건설업체답게 고아원, 양로원 등 노후된 복지시설 개보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현대산업개발(주)〉

### GS건설, 3.5억弗 규모 이집트 플랜트공사 수주

#### 연간 10만톤 규모의 선형알킬벤젠(LAB) 생산시설

GS건설(사장 김갑렬)은 이집트 국영석유회사 산하 이집트 LAB사가 발주한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선형알킬벤젠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합성세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선형알킬벤젠을 생산하는 설비로 이집트 카이로 북서쪽 300km 지점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지역 아메리아 산업단지내 건설된다.

이번 공사는 이집트 현지 설계업체인 엔피사와



시공업체인 페트로젯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것으로 GS건설은 설계, 구매 및 공사를 일괄 수행하게 된다. 공사기간은 올 1월부터 오는 2008년 5월까지, 완공 후에는 연간 10만 규모의 선형알킬벤젠을 생산하게 된다.

GS건설은 이번 수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허선행 해외영업담당 상무는 "현재 카타르에서도 동일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선형알킬벤젠(LAB) 분야의 공사 경험이 풍부한 만큼 이번 공사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GS건설(주)〉

### 건교부

#### 2005년 12월 5일 : 지원근무

#### 고객만족센터 도시서비스반

복합도시개발팀 사무관 박선규  
도시정책팀 주사보 이건준

#### 토지서비스반

국토정보기획팀 사무관 최명섭  
토지관리팀 주사 임석홍  
부동산평가팀 주사 황순덕

#### 건설경제서비스반

건설지원팀 사무관 김현중  
건설경제팀 주사보 김석원